

<용비어천가>에 대하여

조홍욱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1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조선 왕조의 창업주 태조(太祖)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穆祖)에서부터 태종(太宗)에 이르기까지 6조[穆祖, 翼祖, 度祖, 桓祖, 太祖, 太宗]의 사적을 통하여 왕업의 어려움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본문은 총 12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한글 가사와 이를 한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시, 그리고 각 장의 사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한문 주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1445년)에 제진(製進)되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최초의 기록으로서 15세기 중세국어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어학 자료이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악장 시가를 대표하는 작품이어서 문학적으로도 악장 시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동시에 악곡에 얹혀져 노래되었고 그 악보가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므로 음악적으로도 당대의 음악적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 글은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용비어천가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여졌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널리 알려져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이용하면 좀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1.1 용비어천가는 세종 24년 3월에 그 창작이 준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종 24년 3월 1일[임술]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홍무(洪武) 13년 9월에 왜구가 때를 지어 육지로 올라와 경계를 침략하였을 때에, 우리 태조께서 부오(部伍)를 정비하여 이끌고서 바로 운봉(雲峰)에 이르러 한번에 소탕하였으니, 그 훌륭한 공과 위대한 업적은 후세에까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경은 도내 여러 고을에 산재하여 살고 있는 늙은이들에게 널리 다니며 방문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용비어천가를 짓고자 하여 이러한 전지를 내린 것이었다.

이처럼 세종 24년부터 준비되었던 용비어천가의 창작은 세종 27년 4월에 권제(權躋), 정인지(鄭麟趾), 안지(安止) 등에 의해 완성되어 진전문(進箋文)과 함께 상진(上進)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종 27년 4월 5일 [무신]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 우찬성 권제 · 우참찬 정인지 · 공조참판 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렸다. 전(箋)에 이르기를,

“어진 덕을 세상에 널리 베풀시고 큰 복조를 성하게 열으시매, 공(功)을 찬술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가장(歌章)에 편이 마땅하오니 이에 거친 글을 편찬하와 예감(睿鑑)에 상달하옵니이다. …… 편찬한 시가는 총 1백 25장이온데, 삼가 쓰고 장황(裝潢)하여 전(箋)을 아뢰니이다.”

하니, 판에 새겨 발행하기를 명하였다.

그러나 이때 완성되어 발간되도록 세종의 명을 받았던 용비어천가는 바로 간행된 것이 아니었다. 이때 완성된 용비어천가는 다시 최항(崔恒)을 중심으로 하는 집현전 관리들이 세종의 명을 받아 보수(補修) 작업을 진행하여 세종 29년 2월에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항의 용비어천가발(龍飛御天歌跋)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을축(乙丑) 해에, 의정부 우찬성 신 권제 · 우참찬 신 정인지 · 공조참판 신 안지 등이 125장을 지어서 올렸으니, 모두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고, 옛날과 지금의 고증을 들어 이를 부연했으며, 경계하는 뜻으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진하게 읊서는 이를 아름답게 여겨서, 이름을 내려서 용비어천가라 하셨습니다. 오직 이와 같은 사적들이 비록 사책(史冊) 위에 실려 있기는 하나, 사람들이 널리 볼 수 없음을 근심하시어, 신을 비롯하여 수집현전교리 신 박팽년(朴彭年) · 수돈령부판관 신 강희안(姜希顔) · 집현전부교리 신 신숙주(申叔舟) · 수부교리 신 이현로(李賢老) · 수찬 신 성삼문(成三問) · 신 이개(李垔) · 이조좌랑 신 신영손(辛永孫) 등에게 명하시어 주석을 더하시게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알아보기 쉽게 되고 거기에다 음(音)과 훈(訓)까지도 풀이해서, 보는 자가 읽기에 편리케 되었습니다. 전부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행되었던 용비어천가의 보수 작업에 대한 세종의 주된 관심은 6조의 행적을 보충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보수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세종 28년 10월 11일[을사]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임금이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과 응교 어효침(魚孝瞻)에게 이르기를, “…… 용비시(龍飛詩)를 태조께서 승천부(昇天府)에서 접전하던 상황에 침입했던 것은, 비록 속언에는 전함이 있으나 역사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니, 이 일로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유루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여러 사관(史官)들과 더불어 사초(史草)를 자세히 상고하여, 위에서 도조(度祖)와 환조(桓祖)로부터 태조에 이르기까지 행사한 자취를 수색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주석을 더하는 것과 같은 보수 과정을 통해 완성된 용비어천가는 세종 29년 6월 악장으로서 공사간(公私間)의 연향에 모두 통용케 된다. 그리고 세종 29년 10월 16일 550본(本)이 간행되어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지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용비어천가의 제작이 세종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세종은 이를 통해서 왕실의 위대함을 보다 많이 널리 알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1.2. 용비어천가는 세종 29년에 간행된 이래 몇 차례의 간행이 있어 왔다.

그것은 용비어천가가 조종(祖宗)의 공덕을 밝히는 내용이어서 왕업이 지속되는 동안은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효종 9년 5월 3일[기해]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上)이 예조판서 홍명하(洪命夏)에게 이르기를,

“용비어천가는 곧 조종의 공덕이 실린 책인데, 내간에 한 질이 있을 뿐, 외간에는 전혀 없다고 하니, 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명하가 이르기를,

“이 책은 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입니다. 내장본 한 질을 교서관에 내려보내서 간행하여 반포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처럼 몇 차례 간행된 용비어천가는 전 10권 5책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편제는 다음과 같다.

龍飛御天歌序(정인지)

龍飛御天歌箋(권제, 정인지, 안지)

권 제1: 제1장 - 제9장

권 제2: 제10장 - 제12장

- 권 제3: 제13장 - 제17장
 - 권 제4: 제18장 - 제26장
 - 권 제5: 제27장 - 제40장
 - 권 제6: 제41장 - 제49장
 - 권 제7: 제50장 - 제58장
 - 권 제8: 제59장 - 제77장
 - 권 제9: 제78장 - 제97장
 - 권 제10: 제98장 - 제125장
- 龍飛御天歌跋(최항)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이본(異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람본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목판(木板)으로 서울대 도서관의 가람문고에 소장된 2권 1책의 영본(零本)이다. 가장 오랜 것으로 원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고판본(古板本)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목판으로 서울대 도서관의 규장각 도서에 두 질(帙)이 소장되어 있는데 완질은 아니다.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晩松文庫)에도 같은 계통의 책이 있다.

만력본(萬曆本)

광해군 4년(만력 40년, 1612년)에 간행된 목판으로 태백산본(太白山本)과 오대산본(五臺山本) 두 질이 10권 5책 완질로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원간본의 복각(覆刻)으로 원래의 한글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비교적 원간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15세기와 17세기의 언어적 차이에 따른 오각(誤刻) 및 개각(改刻)이 있다.

순치본(順治本)

효종 10년(순치 16년, 1659년)에 간행된 목판으로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간본의 자체와 달라진 복각본으로 언어 사실의 변화에 따라 고판본이나 만력본과도 다른 오각 및 개각이 있다.

건륭본(乾隆本)

영조 41년(건륭 30년, 1765년)에 간행된 목판으로 규장각 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순치본의 자체를 그대로 답습한 복각본으로 순치본의 오각 및 개각을 물려받고 있으며 방점의 누락이 더 심해졌다.

이러한 용비어천가의 이본들 중에서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영인본은 만력본 중 오대산본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인본은 만력본을 저본으로 기타 판본과 비교하여 수정 보입(補入)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용비어천가는 한글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어서 어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용비어천가가 가지고 있는 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의의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 자료 중에서 다음 밑줄친 예처럼 ‘빙’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뵘 기벼를 알씨 호뵘사 나사가샤 모딘 도즈굴 물리시니이다
스궤뵘 軍馬를 이길씨 호뵘사 물리조치샤 모딘 도즈굴 자브시니이다
(제 35장)

이러한 어형들은 다른 문헌에서는 ‘빙’이 소실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15세기 중엽이 ‘빙’의 소실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비어천가는 한글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모습을 보여주는 어학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종성(終聲) 표기에 있어서 다음 밑줄친 예처럼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를 깊고 비엿건마른 하늘히 命호실씨 물튼자히 건너시니이다
城 높고 드리엿건마른 하늘히 도뵈실씨 물튼자히 느리시니이다
(제 34장)

이러한 받침 표기는 8종성법의 예외를 보이는 표기로, 어간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의 한글 맞춤법과 같은 원리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가 세종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만 보인다는 점에서 세종의 뛰어난 문법적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셋째, 지명(地名)과 인명(人名), 그리고 직명(職名) 등의 표기에서 국어계 단어는 물론 여진어계와 몽고어계 단어들까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국어계 지명들은 다음과 같이 한자어화되지 않은 옛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赤島 불근섬(1: 8), 牛峴 쇼재(1: 31) 熊津 고마누르(3: 15) 馬山 물
뢰(5: 42)

그리고 한글로 표기된 여진어계와 몽고어계 단어들은 여진어와 몽고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3

용비어천가는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악장 시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평가는 용비어천가가 다음의 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불휘 기픈 남긴 브르매 아니 뵈썩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그르래 아니 그츨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 2장)

제 2장의 앞절과 뒷절의 내용을 서로 짝을 지어 놓고 보면 우선 그 율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벽한 대구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적으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무’로써 왕손의 번성함을 상징하고 ‘물’로써 국가의 영원무궁함을 상징한 상징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작품 자체로서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는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전시가의 사적(史的) 전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3.1. 용비어천가가 시가사(詩歌史)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는 우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영웅서사시적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영웅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웅서사문학은 보통 영웅의 일대기라고 불리는 일정한 유형에 의해 전개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6조(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의 행적은 어느 한 영웅도 영웅의 일대기라는 일정한 유형에 의해 전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비서사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용비어천가의 제작 의도는 그 서(序)에서 “열성(列聖)께옵서 기업(基業)을 닦으신 먼 지난 일을 추구(推究)하여 그 덕을 서술하고 되풀이하여 읊어서 왕업(王業)의 간난(艱難)함을 밝히고”라고 밝히고 있듯이 6조 각 개인의 행적을 찬양하여 그들을 영웅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6조의 행적 전체를 통해서 왕업의 어려움을 노래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제작 의도 때문에 작품 전체의 총서(總序)라고 밝힌 제 1장의 내용이 6룡(六龍)의 행적, 즉 6조 전체의 행적을 통해 왕업의 흥성을 노래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제 1장)

따라서 용비어천가에서 노래되고 있는 6조 각 개인의 행적은 영웅의 일대기라는 일정한 유형을 갖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6조 행적 전체는 한 명의 영웅이 보여주는 영웅의 일대기라는 일정한 유형에 의해 전개된다. 즉 6조 각 개인의 행적은 영웅의 일대기라는 일정한 유형을 가지지 않지만, 6조의 행적 전체를 놓고 볼 때 4조(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행적은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영웅의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유형으로서의 고귀한 혈통, 기아(棄兒)와 죽음 그리고 그 위기의 극복 등의 행적을 보여주고, 태조와 태종의 행적은 영웅의 성장 이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서의 자라서의 위기, 투쟁에서의 승리 등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용비어천가는 6조의 행적을 한 명의 영웅이 보여주는 행적으로 묶어서 그 내용을 영웅의 일대기라는 유형에 의해 전개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6조의 행적 전체가 하나로 합쳐져, 한 명의 영웅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영웅의 일대기라는 일정한 유형을 갖게 됨으로써 용비어천가는 영웅서사문학의 전통을 잇게 된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우리 영웅서사문학의 전통을 잇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영웅서사시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3.2. 용비어천가가 시가사에서 지니고 있는 또 다른 가치는 그것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과도기적 율격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의 시가는 1행 3음보격의 율격을 보여주고, 조선 시대의 시가는 1행 4음보격의 율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용비어천가는 이러한 3음보율에서 4음보율로 변모하는 과도기적 율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비어천가가 보여주는 율격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조선시가 형식상 보기 드문 형식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용비어천가의 형식은 대체로 각 장(章)은 두 개의 행(行)으로 이루어지고, 각 행은 세 개의 구(句)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에 나타나는 대체적인 율격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 개의 구가 모두 2음보를 이루는 형태이다.

우리 / 始祖 |
慶興에 / 사르샤
王業을 / 여르시니(제 3장, /:음보 표시)

둘째,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를 이루고, 제 3구는 3음보를 이루는 형태이다.

활쏘리 / 하건마룬
武德을 / 아르시니
武德으로 / 百姓을 / 救호시니(제 45장)

셋째,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를 이루고, 제 3구는 4음보를 이루는 형태이다.

天爲 / 拯民호사

天才를 / 느리오시니

藪中 / 담뱃를 / 스물살 / 마치시니(제 32장)

이러한 유형을 통해서 용비어천가의 한 행은 대체로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를 이루고, 제 3구는 2음보·3음보·4음보가 두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 1구와 제 2구는 2음보로 고정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제 3구는 2음보·3음보·4음보가 함께 나타나는 가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제 3구의 음보격이 다양하게 나타남은 그것이 아직 율격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형태여서 과도기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변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에 이르게 되면 1행 4음보격의 율격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는 1행 4음보의 조선 시가의 율격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우횃 / 대버들 / 혼소노로 / 티시며

싸호논 / 한쇼를 / 두소내 / 자브시며

드리에 / 떠덜믈 / 넌지시 / 치혀시니

聖人 /神力을 / 어느다 / 슬복리(제 87장)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1행 3음보격과 1행 4음보격의 율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1행 4음보격의 율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용비어천가는 율격적 특징이 고려 시대 시가가 보여주는 3음보격에서 조선 시대 시가가 보여주는 4음보격으로 변화 과정에 있는 과도기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율격적인 측면에서 고려 시대 시가와 조선 시대 시가를 잇는 시가사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4

용비어천가는 제작 당시부터 노래로 불려질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제작과 함께 그 한글가사는 치화평(致和平)과 취풍형(醉豊亨)이라는 음악으로 노래되고, 한문가사는 여민락(與民樂)이라는 음악으로 노래된다. 그리고 이 음악들의 악보가 세종실록에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시대 음악의 특징을 살필 수 있으며, 음악사적인 의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용비어천가의 음악적 사용은 음악이 단순히 노래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악(禮樂)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제작층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용비어천가서(序)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드려 살피옵건대, 전하계옵서 조종(祖宗)의 대통을 이어받으시고 정사(政事)에 임하시어, 예(禮)가 갖추어지고, 악(樂)의 화(和)함을 얻었으니, 덕을 기리는 노래를 짓는 것이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 삼가 민속의 칭송하는 말을 따서 노래 125장을 찬하였습니다. …… 관현(管絃)에 올려서 무궁한 앞날에 전하는 것이, 이것이 신(臣) 등의 지극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용비어천가는 제작과 함께 종묘악(宗廟樂)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연향악(宴享樂)으로도 두루 통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29년 6월 4일[을축]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 이제 용비어천가를 내리신 것은 조종의 융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하고 읊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오니, 마땅히 상하에 통용하여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을 극진히 하여야 할 것이옵고, 종묘에서 쓰는 데만 그치게 함은 불가하오니, 여민락·치화평·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간(公私間)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 일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제작 당시에는 그 음악적 쓰임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제작 이후 바로 종합예술형태인 정재(呈才)로 확대되어 향유되게 되었던 것이다. 용비어천가는 제작 이후 봉래의(鳳來儀)라는 정재로 확대되어 향유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에 전하는 봉래의 정재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권 140부터 권 145까지 봉래의 정재가 실려 있는데, 향악 정재인 봉래의는 여민락·치화평·취풍형이 함께 노래되는 방대한 악곡이다.

그런데 이 봉래의는 국악(國樂) 분야에서 볼 때 향악(鄉樂)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세종의 음악관이 잘 드러난 향악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를 노래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의 향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음악이 조선 후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전통음악의 뿌리 구실을 하였다는 점에서 용비어천가의 제작은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작 당시 강조되었던 용비어천가의 음악적 성격은 후대에 들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가사 125장 전체를 노랫말로 사용했던 치화평과 취풍형은 악학계법에 이르러 치화평은 제 1장에서부터 제 16장까지와 제 125장의 가사만으로, 그리고 취풍형은 제 1장에서부터 제 8장까지와 제 125장의 가사만으로 축소되어 전승되었고, 그 이후 점차 전승이 약화되어 현재는 여민락만 가사를 잃어버리고 관현악곡으로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5

용비어천가가 가지고 있는 어학적, 문학적 그리고 음악적 가치들 중에서 제작 당시에 보다 중요시되었던 것은 음악으로서의 기능이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궁중음악으로서의 악장의 제작은 예악이 갖는 치세(治世)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의 문물제도를 정비한 정도전(鄭

道傳)이 지은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종묘(宗廟)의 악(樂)은 조상의 거룩한 덕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朝廷)의 악(樂)은 군신간의 장엄하고 존경함을 지극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므로 종묘에서 사용하면 조상들이 바르게 되고, 조정에서 사용하면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게 되고, 이를 향당(鄉黨)과 방국(邦國)에 확대하면 교화가 실현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니 악(樂)의 효과는 이렇듯 시원한 것이다.

음악을 치세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용비어천가의 찬자들이 시경(詩經)을 용비어천가 제작의 이념적 전범으로 삼았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시경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문가사의 형식을 시경체를 본따 4언 4구체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용비어천가의 한문가사가 시경체인 4언 4구체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시경이 가지고 있는 치세와 관련된 음악으로서의 권위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용비어천가는 이처럼 조선왕조의 창업을 칭송하고, 이를 통해서 치세를 이루려는 의도에서 그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창업이 하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6조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통해 밝히고, 당대가 태평성대임을 들어 왕조의 번성이 무궁할 것임을 확신하는 송도(頌禱)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용비어천가전(箋)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위대하신 여러 대(代)의 큰 공은 전성(前聖)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가지런히 하였으며, 이를 형용해 노래하여 내세(來世)와 지금에 밝게 보이옵니다. 공경하여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학문이 오직 한결 같으시고 정밀하시며, 선업(先業)을 잘 잇고 행하시어 도(道)가 흠족하고 정사가 다스려져서 패연(霽然)히 덕택이 널리 젖었고, 예(禮)가 갖추어지고 악(樂)이 화하여 밝게 문물(文

物)이 극히 나타났사오니, 생각하옵건대, 시가(詩歌)를 지음은 이 성하고 태평한 시기에 속하옵니다.

결국 용비어천가는 왕조의 창업을 찬양하기 위한 아침의 문학이 아니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교술적 기능이 강조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용비어천가』(1972), 아세아문화사.

허 응 주혜(1967), 『용비어천가』, 정음사.

강신항(1958), 「용비어천가의 편찬 경위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6-1, 서울대 문리대.

김정아(1993), 「용비어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서수생(1965), 「용비어천가에 미친 시경의 영향」, 『경북대논문집』 14, 경북대학교.

성기옥(1989), 「용비어천가의 문학적 성격」, 『진단학보』 68, 진단학회.

송방송(1984),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송기중(1990),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북방민족어명」,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이기문(1962), 「용비어천가 국문 가사의 제문제」, 『아세아연구』 5-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혜구(1964), 「용비어천가의 형식」, 『동아문화』 2,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장덕순(1964), 「용비어천가의 장르」, 『동아문화』 2,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정두희(1989), 「조선 건국사 자료로서의 용비어천가」, 『진단학보』 68, 진단학회.

정병욱(1983),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조홍욱(1986), 「용비어천가의 성격」,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